

한국의 전통적 생태사상과 평화주의:

홍대용의 경우

박희병 (서울대학교)

국문요약

한국의 전통사상에 내장(內藏)된 평화주의적 지향을 18세기의 사상가인 담헌 홍대용을 하나의 사례로 들어 살펴보았다. 홍대용의 평화주의는 그의 독특한 생태주의적 존재론에 의해 밀받침되고 있으며, 평등과 반폭력의 지향을 강하게 보여준다. 그는 특히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대립적이거나 배타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상호평등한 수평적인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평화주의를 정초하고 있다.

주제어: 담헌, 홍대용, 평화주의, 생태주의, 인물군(人物群), 화이일(華夷一)

I. 머리말

생태주의와 평화주의는 그 본질에 있어서 밀접하게 연관된다. 생태주의는 그 핵심에 평화주의적 지향을 간직하며, 평화주의는 그 근저에서 생태주의적 감수성이 요청된다.¹⁾ 이 점에서 이른바 ‘녹색평화론’은 오늘

1) 생태주의와 평화주의의 관련에 대해서는 박희병, “생태주의와 평화주의,” 『녹

날의 문명과 세계가 봉착한 문제를 풀기 위한 주요한 사상적·정치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생태주의와 평화주의의 관계, 녹색평화론에 대한 이론적 모색은 서구 학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구발 녹색평화론을 경청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비서구권에서도 그 문화적 전통 속에 내재된 생태주의적 및 평화주의적 지향들을 찾아내어 이를 이론화함으로써 세계가 봉착한 문제의 해결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생태주의와 평화주의를 결합시키는 작업에서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전근대 시기의 다양하고 풍부한 생태평화주의적 사유와 실천을 주목하고 재조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비록 녹색평화론이 다루는 문제가 근대의 문제이기는 해도, 전근대의 경험과 사고를 경청하면서 거기서 많은 시사를 구하려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현금 요청되는 녹색평화론은, 특정문화권의 특권화 및 근대의 특권화의 철폐를 전제로 삼지 않으면 안되며, 개방성과 다양성, 자기중심성의 부정 위에서 추구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본 글에서 한국의 전통적 생태사상과 평화주의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담헌 홍대용의 경우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Ⅱ. 홍대용의 존재론: 인물균(人物均)

홍대용은 이른바 ‘인물균’(人物均) 사상을 펼쳤다. ‘인물균’은 ‘인’(人)과 ‘물’(物)이 평등하다는 주장이다. ‘물’은 인간 이외의 일체의 동식물을 말한다. 홍대용은,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보다 사람이 귀하게 마련이

색평론』, 80 (2005)에서 한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만, 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보다 물이 귀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하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과 물은 똑같다라고 말했다.²⁾ 이는 새로운 존재론의 개진이다.

유학은, 비록 그것이 근대인의 인간중심주의만큼 지독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해 있다. 홍대용은 이런 유학의 인간중심주의를 근본적으로 반성하면서, 인과 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는 세계의 재구성, 고쳐 말해 새로운 세계관의 구성에 다름 아니다. 홍대용 사상의 평화주의적 면모는 인물균이라는 이 독특한 존재론에 의해 정초되어 있다.

홍대용의 존재론은, 인간의 자연 내 지위를 상대화시키면서 인간 이외의 다른 생물들에 인간과 균등한 가치를 부여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 존재론은 인간의 입장이거나 물의 입장이 아니라 이 양자를 지양한 입장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이것이 곧 홍대용이 말한 ‘천(天)의 입장이다. ‘천’의 입장에서는 인간중심주의도 물중심주의도 모두 성립될 수 없으며, 인간과 물은 근원적으로 균등한 존재다. 그렇다면 이 ‘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만일 장자적(莊子的) 관점에서 본다면 이 천은 바로 ‘도’를 의미할 것이다. 『장자』의 추수편(秋水篇)에 보면 이런 말이 보인다. “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物)에는 귀천이 없다. 그러나 물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귀하고 상대방이 천하다”(以道觀之, 物無貴賤; 以物觀之, 自貴而相賤). 주지하다시피 『장자』에서 도라는 것은 모든 차별과 대립과 구분을 넘어선 궁극적 지경(地境)을 뜻한다. 모든 존재는 이 도에서 유래하고, 도에 포괄되며, 도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이 도는 존재와 현상의 비차등성(非差

2) 『의산문답』, 『국역 담헌서 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4), p. 54. 이하 본서에서 인용하는 『의산문답』의 번역은 모두 이 책의 것이다.

等性)을 담보하며 특정 존재의 우월성을 부정하는 궁극적 원리이다. 그것은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의미의 ‘자연’(自然) 바로 그것이다. 도, 즉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에 우열과 귀천과 상하는 없으며, 만물은 제동(齊同)이다. 홍대용이 말한 ‘천’은 이런 장자적 의미의 ‘자연’에 비추어 이해될 수도 있을 터이다.

홍대용은 기철학자(氣哲學者)였다. 그는 기철학의 견지에서 하늘을 이렇게 규정한 바 있다. “하늘은 기(氣)일뿐이요, (· · ·) 만물은 기(氣)의 조박(糟粕)이다.”³⁾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땅은 만물의 어머니요, 해는 만물의 아버지며, 하늘은 만물의 할아버지다.”⁴⁾ 중국의 기철학자 장재(張載)는 하늘을 ‘태허’(太虛)로 규정한 바 있다. 태허는 텅 비어 있어 되 만물을 낳으며 만물의 근원이 되는 세계의 제1원리에 해당한다. 그것은 기(氣)입과 동시에 기(氣)의 궁극적 근거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자생자화’(自生自化)를 속성으로 한다. 이 점에서 태허는 『장자』의 자연과 상통한다. 홍대용이 말한 ‘천’은 기철학에서 운위되는 이 ‘태허’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도 있으리라 본다.

중요한 것은, 인간중심주의를 허물면서 인간 외 다른 생물의 가치를 본원적으로 인간과 대등한 것으로 재규정하는 홍대용의 존재론은 오늘날의 근본 생태주의와 상통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홍대용의 존재론은 일종의 ‘자연철학’임과 동시에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적 재구성, 즉 새로운 ‘세계관’의 기획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위의 책, p. 478.

4) 위의 책, p. 478.

Ⅲ. ‘활물’(活物)로서의 지구: 존물적(尊物的) 관점

홍대용은 지구를 하나의 활물(活物), 즉 살아 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지구는 활물이다. 맥박과 경락, 영위(營衛)⁵⁾가 실상 사람의 몸과 같은데, 다만 그 몸뚱이가 크고 무거워 사람처럼 뛰고 움직이지 못할 뿐이다.”⁶⁾ 또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대저 지구는 허계(虛界)의 활물이다. 흙은 그의 살이고, 물은 그의 정기와 피이며, 비와 이슬은 그의 땀이고, 바람과 불은 그의 혼백이며 영위(營衛)다. 그러므로 물과 흙은 안에서 빛어내고, 태양의 화기(火氣)는 밖에서 쪼이므로, 원기(元氣)가 모여 온갖 물(物)을 낳는다. 풀과 나무는 지구의 모발이고, 사람과 짐승은 지구의 벼룩이며 이(蝨)다.”⁷⁾

이에서 보듯 홍대용은 지구를 그 전체로서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물(物)에 대한 인간의 일방적 지배와 이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 물 역시 생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점에서 인간과 다를 바 없다. 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그 자체가 존재의 이유인 것이다. 풀과 나무, 그리고 온갖 동물들은 인간과 함께 ‘지구공동체’의 일원이다. “풀과 나무는 지구의 모발이고, 사람과 짐승은 지구의 벼룩이며 이(蝨)다”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홍대용에게 있어 물은 한갓 타자(他者)가 아니다. 지구 위에서 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체인 것이다. 이에서 존물(尊物), 즉

5) 한의학에서 영혈(營血)과 위기(衛氣)를 이르는 말. ‘영혈’은 인체의 영양을 조절하여 원기를 왕성하게 하는 혈액이고, ‘위기’는 땀구멍을 여닫으며 외부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면서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양기(陽氣)를 말한다.

6) 『의산문답』, p. 481.

7) 위의 책, p. 484.

물에 대한 존중이 생겨난다. 지구적 관점에서 볼 때, 나아가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과 물은 각기 서로 대등한 하나의 주체이며, 다 함께 존재의 근원에 맞닿아 있다. 홍대용의 이런 존물적 관점 속에는 인간과 물의 상생과 공생을 위한 높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IV. 기화(氣化)와 형화(形化): 인간에 의한 자연 수탈의 유래

홍대용은, 인간과 물(物)의 형성에는 기화(氣化)와 형화(形化) 두 종류가 있는데, ‘기화’는 순전히 기(氣)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고, ‘형화’는 암수의 교접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⁸⁾ 상고시대에는 오로지 기화만 존재했기 때문에 인간과 물이 많지 않았으며, 둘은 서로를 해치는 일 없이 화락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었다고 본다. 이 단계의 인간은 욕심도 없고, 물(物)에 의뢰할 필요도 없었으니, 조수(鳥獸)와 어별(魚鼈)이 모두 제 마음대로 살고 초목과 금석(金石)도 각각 제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고 했다.⁹⁾ 이처럼 홍대용이 그려 놓고 있는 상고시대는 인간과 물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각각 자족적으로 생을 영위하는 세계다.

하지만 중고(中古)로 내려와 ‘형화’가 생기면서 ‘기화’는 끊어졌다. 이에 따라 인간과 물의 수가 늘어나고, 정욕이 생기게 되었으며, 인간과 물은 각각 제 몸을 위하기에 이르렀다. 인간은 음식과 의복과 주거를 위해 물을 마음대로 약탈했는데, 그 때문에 조수와 어별이 제대로 살 수 없게

8) 위의 책, p. 484.

9) 위의 책, pp. 484~485.

되었고, 초목과 금석이 형체를 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상고시대가 보여 주던 인간과 물의 화락한 관계는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¹⁰⁾

이처럼 홍대용은 중고시대에 접어들면서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대두하고, 기교(奇巧)한 꾀가 나타나며, 인간에 의한 자연의 수탈이 야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¹¹⁾

홍대용이 관념한 상고시대는 신화적 상상력의 소산이며, 실제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홍대용이 ①욕망, ②인간의 자기중심성, ③인세(人世)의 문명화, ④인간에 의한 자연의 수탈, 이 넷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통찰을 보여준다는 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V. 자연수탈과 지배/피지배 관계의 상관성

흥미로운 점은, 홍대용이 인간의 자연수탈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 수탈을 낳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¹²⁾ 인(人) 대 물(物)의 관계가 인(人) 대 인(人)의 관계로 전이(轉移)됨에 대한 통찰이다.

홍대용은 지배/피지배 관계와 정치 권력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에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욕심 많은 자가 그 중간에 나서 제 마음과 같은 자를 이끌어 각각 우두머리 노릇을 하게 되매, 약한 자는 수고롭게 일하고, 강한 자는 그 이익을 누렸다. 땅을 쪼개어서 서로 차지하려고 눈을 부라리며, 무기를 갖고 싸우고 주먹을 뻗쳐 육박전을 벌이니, 마침내 백성의 삶

10) 위의 책, p. 485.

11) 이상의 서술은 박희병, “담헌 사회사상의 논리와 체계,” 문석운 외, 『담헌 홍대용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에서 가져온 것이다.

12) 이하의 서술은 위의 글에서 가져온 것이다.

을 해치게 되었다.¹³⁾

군장(君長)과 국가의 탄생 과정을 그리고 있다. 욕망에 의한 소유의 발생과 인간의 자연에 대한 수탈이 마침내 국가와 지배자=군장(君長)을 낳게 되고, 폭력을 초래하게 됐다고 홍대용은 보고 있다. 욕망, 소유, 자연수탈, 지배, 피지배, 국가, 폭력, 군장(君長) 등의 발생 과정 및 그 상호 연관성에 대한 홍대용의 사회학적 통찰은 대단히 빼어난 것이라 할 만하다.

홍대용은 이에 더해 다음에서 보듯 무기의 탄생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교(巧)한 자가 재주를 부려 살기(殺氣)를 도발하였다. 쇠를 정련하고 나무를 쪼개어 흥기를 만들었다. 날카로운 칼과 창, 흉악한 활과 화살로 성을 다 투고 땅을 다투매 시체가 들을 가득 덮었다. 인민의 재앙이 이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다.¹⁴⁾

요컨대 홍대용은 인간과 물의 본래적 관계인 '인물군'이 인간의 문명화 과정에서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그 결과 인간 사회의 불평등과 폭력, 착취, 지배/피지배, 전쟁을 낳게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VI. 반전(反戰)

홍대용은 적이 침략해 오면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전

13) 『의산문답』, pp. 485~486.

14) 위의 책, p. 486.

쟁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즉, 홍대용은 침략전쟁에 반대했다. 홍대용의 다음 말들이 참조된다.

(가) 병법은 싸움 앓는 것이 가장 좋고, 싸움 좋아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¹⁵⁾

(나) 행군하는 군사는 험지에서 피곤하고, 백성은 짐 실어 나르는 데 지친다. 이기면 군사가 반은 상하고, 이기지 못하면 국토를 도리어 잃게 된다. 그리고 기근이 따르게 되어 적국이 틈을 엿보게 된다. 성인(聖人)이 전쟁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¹⁶⁾

(다) 해자를 설치해 놓고 강함을 다투다가 사상자를 반이나 내는 것은 병법의 재앙이며, 성을 공격하고 땅을 공략하여 백 번 싸워 다 이기는 것은 병법으로서 하위(下位)다. 인의(仁義)가 나라 안에 행해지고 적국(敵國)도 밖에서 쉬게 되어 싸우지 않고 남의 군사를 굴복시키는 것이 곧 성인(聖人)의 사람 살리는 도구이며, 병법으로서 최선이다.¹⁷⁾

이들 예문에서 알 수 있듯 홍대용은 전쟁을 일으키는 일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가 간의 분쟁을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침략전쟁에 대한 반대 의사는 『의산문답』에도 표명되어 있다. 다음이 그것이다.

자기의 것이 아닌데 취하는 것을 ‘도’(盜)라 하고, 죄가 아닌데 죽이는 것을 ‘적’(賊)이라 한다. 사이(四夷)가 중국 땅을 침략하는 것을 ‘구’(寇)라 하고, 중국이 무력을 남용해 사이(四夷)를 치는 것을 ‘적’(賊)이라 한다. 그러나 구

15) 『임하경륜』, 『국역 담헌서 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4), p. 437. 이하 본고에서 인용하는 『임하경륜』의 번역은 모두 이 책의 것이다.

16) 위의 책, p. 437.

17) 위의 책, pp. 441~442.

(寇)와 적(賊)은 똑같다.¹⁸⁾

중국 주변의 국가가 중국을 침략하는 일이든, 중국이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일이든 모두 똑같은 도적질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이유에서든 타국의 영토를 공격하거나 무력으로 점거하는 일은 극히 부당한 일이라는 것이다. 홍대용의 확고한 반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반전주의는 동아시아인이 공유하는 중요한 지적 자산으로 삼을 만하다.

VII. 사회적 평등

‘평화’는 소극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 점에서 홍대용의 반전주의는 평화를 위한 중대한 사상적 진전을 이룬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적극적 의미의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나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나 모순이 적절히 조정되고 중재되며, 구조적·문화적 폭력¹⁹⁾이 제거되고, 이를 통해 평등과 정의가 관철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되는 것은, 홍대용의 사상이 이런 적극적 평화에 대한 지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그가 저술한 『임하경륜』에서 이 점이 잘 확인된다.²⁰⁾ 홍대용

18) 『의산문답』, pp. 490~491.

19)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에 대한 정의는 요한 갈통, 강종일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원서의 제목과 출판연도는 *Peace by Peaceful Means*, 1996), pp. 19~20 참조.

20) 이하의 논의는 박희병, “담헌 사회사상의 논리와 체계” 제2장에서 발췌한 것이다. 홍대용의 사회사상 및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신용하, “담헌 홍대용의 사회 신분관과 신분제도 개혁사상”, 『한국문화』, 12 (1991); 조광, “홍대용의 정치사상연구”, 『민족문화연구』, 14 (1979)가 참조된다.

은 학문의 궁극적 목적이 ‘정심구세’(澄心救世)라고 말한 바 있는데,²¹⁾ 이 책은 그 실천이다.

이 책에는 조선을 개혁하는 방안의 대강(大綱)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초점은 행정제도, 토지제도, 군사제도, 교육제도, 인재등용 방식, 축성법 등에 맞춰져 있다. 우선적으로 주목할 것은 토지제도다. 이는 국가의 물적(物的) 기초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생산관계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토지제도에 대한 구상은 사회 전체의 청사진에 대한 밑그림이 된다.

홍대용은 토지의 균분(均分)을 주장했으며, 토지 세습을 인정하지 않았다.²²⁾ 토지가 부호나 권세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 민(民)의 향산(恒産)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와 국가의 안정을 꾀한 것이다.

한편, 『임하경륜』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보인다.

마땅히 양사(兩司: 사간원과 사헌부를 이룸·인용자)를 혁파하여 위로 공경(公卿)으로부터 아래로 서예(胥隸)에까지, 가까이는 환시(宦侍)로부터 멀리는 농민에 이르기까지 각기 일을 수행함에 있어 소회(所懷)가 있으면 반드시 아뢰도록 하여야 한다.²³⁾

여기서 보듯, 언로(言路)를 상하의 전(全) 관리와 인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민을 포함시킨 것은, ‘인민권’의 신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실, 『임하경륜』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로 이 민권의 신장에 대한 숙고에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민권의 신장은 문벌의 제한과 신분

21) “손용주에게 준 글,” 『杭傳尺牘』, 『국역 담헌서 Ⅱ』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4), p. 136.

22) 『임하경륜』, p. 430.

23) 위의 책, p. 431.

제의 해체를 통해 획책된다. 한편 문벌의 제한과 신분제의 해체는, 전 인민(여성은 제외)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간은 누구나 예외없이 근로(勤勞)에 종사해야 한다는 이른바 ‘만민개로(萬民皆勞)’의 주장을 통해 실현된다. 바로 이 대목이 『임하경륜』에서 가장 정책을 발하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사농공상의 신분이 세습되는 제도를 없애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 양반의 세습은 인정될 수 없으며 공경(公卿)의 자제라 하더라도 재능과 학식이 없다면 노비 일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 농공상 출신의 자제라 하더라도 재능이 있고 훌륭한다면 등용되어 조정에서 국정을 관장해야 한다는 것, 이런 여러 주장이 ‘모든 인민에게 똑같이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게 해야 한다’라는 구상으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홍대용의 구상은 가히 혁명적인 성격의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사회의 기본 프레임과 지배관계를 허물고 새로운 틀을 기획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홍대용의 혁신적 구상은 다음과 같다.

안으로 왕도(王都)의 9부(九部)와 밖으로 도(道)에서 면(面)까지 모두 학교를 설치하고 각각 교관을 두는데, 면에는 각각 재(齋)가 있고, 재에는 반드시 장(長)이 있다. 면에서 8세 이상의 자제들을 다 모아서 가르치는데 효제충신의 윤리를 가르치고 활쓰기·말타기·글씨쓰기·셈하기의 기예로써 연습시킨다.²⁴⁾

‘왕도의 9부’란 한성을 9개의 행정조직으로 나눈 것을 이른다. 이에서 보듯 가장 하위의 촌락 단위에까지 학교를 두어 모든 8세 이상의 자제들을 가르칠 것을 구상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일종의 의무 교육이다. 여기

²⁴⁾ 위의 책, p. 433.

서 말하는 ‘자제’가 양반 자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농공상의 모든 자제임은, 이어지는 홍대용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경향(京鄕) 각지에서 이루어지는 이 의무교육에서는 문무(文武)가 고루 가르쳐지고, 또한 도덕과 기예가 함께 가르쳐진다.

그런데 이 의무교육은 교육기회의 평등한 부여라는 의의를 지니는 데 그치지 않으며, 인재 등용과 연결된다. 홍대용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그 중에 재주와 행실이 뛰어나 쓸 만한 자가 있으면 사(司: 먼 위의 행정 단위-인용자)로 보내어 사의 교관이 모아 가르치게 한다. 그 중 우수한 자를 뽑아 차례로 태학(太學)으로 보낸다. 태학에서는 사도(司徒)가 관장하여 가르치는데, 그 언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학식과 재주를 시험하여 매년 정월에 그 중 어질고 능한 자를 조정에 추천해서 관직을 제수하여 책임을 맡긴다. 재주는 높는데 관직이 낮은 자는 차례로 승급시키고 능치 못한 자는 물리친다.²⁵⁾

이에서 보듯, 교육을 통해 우수한 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인재가 등용된다. 이는 곧 과거 시험을 통한 인재등용 방식의 부정을 의미한다. 당시 조선의 과거 제도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실력 있는 인재를 뽑는다는 과시(科試) 원래의 취지는 이미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갖 부정행위가 만연했을 뿐 아니라, 설사 제대로 합격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과거시험을 위해 오랫동안 공부한 것은 국가를 위해 아무 짝에도 도움이 안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갈수록 문호(門戶)를 막아 버려 별열 가문의 자제가 아니면 도무지 선발되기 어려웠다. 그러니 점점 더 소수 특권층이 부와 권력을 세습적으로 장악해 가는 형국이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국’(民國), 즉 백성과 나라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홍대용이 과거제도를 없애고 교육에 의한 인재선발 방식으로서의 전환을 구상한 것은 이런

²⁵⁾ 위의 책, p. 433.

점을 고려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재선발 방식이 궁극적으로 신분제의 철폐와 맞물려 구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홍대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면(面)에서 가르칠 때는 그 중 뜻이 높고 재주가 많은 자는 위로 올려 조정에서 쓰도록 하고, 자질이 둔하고 용렬한 자는 아래로 돌려 야(野)에서 쓰도록 하며, 그 중 생각을 잘하고 솜씨가 재빠른 자는 공업(工業)으로 돌리고, 이(利)에 밝고 재물을 좋아하는 자는 상업으로 돌리며, 꾀를 좋아하고 용맹이 있는 자는 무반(武班)으로 돌리며, 소경은 점치는 데로, 궁형(宮刑)을 당한 자는 문 지키는 데로 돌리며, 심지어 병어리와 귀머거리, 앓은뱅이까지 모두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유의유식(遊衣遊食)하며 일하지 않는 자는 군장(君長)이 벌을 주고 향당(鄉黨)에서 버려야 한다.²⁶⁾

여기에서 보듯, 인재의 선발은 신분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달리 말해, 인재의 선발 방식이 기존 신분제의 폐기를 낳는다. 사람들은 타고난 신분에 따라서 사대부가 되든가 서민=농공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주와 자질에 따라 국정을 담당하기도 하고 상공업에 종사하기도 하며 농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무직에 종사하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놀면서 밥을 먹어서는 안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른바 ‘만민개로’(萬民皆勞)다.

이 만민개로의 사상에는 묵자(墨子)의 영향이 감지된다. 주지하다시피 묵자는 인민의 근로를 대단히 중시하였다. 묵자에게 ‘근로’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실현하며 사회적 행복을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행위였다. 또한 묵자에게 있어 근로는 인간의 사회적 평등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했다. 인간은 ‘근로한다’는 점에서 차별이 없다고

²⁶⁾ 위의 책, pp. 433~434.

간주되었던 것이다.

홍대용의 만민개로 사상은 일차적으로 당대의 유식층(遊食層)인 양반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농공상의 업에 종사하지 않고 무위도식하였다. 농공상에 종사하면 비루하게 여겨 더 이상 양반으로 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굶어 죽을 지언정 근로는 하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양반은 자꾸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일하지 않는 인구도 증대되었다. 양반들은 한정된 벼슬 자리를 놓고 생사를 건 쟁투를 벌이니 국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노는 인구가 많으니 국가 재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서민에 대한 수탈이 엄혹해졌다. 이제 권력과 부는 서울의 고문세족(高門世族)의 양반들, 이른바 경화세족(京華世族)에 독점되어 갔다. 같은 양반이라도 시골 양반은 찬밥신세였다. 조선은 마침내 ‘문벌사회’로 화(化)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 전체가, 사람으로 치면 ‘기혈순환’(氣血循環)이 안되는 위중한 상황에 빠져 버렸다. 홍대용이 주창한 만민개로는 당대 조선이 봉착한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무위도식하는 양반으로 하여금 농공상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길을 터 주고, 문벌에 의한 권력과 부의 독점과 세습을 끊어 버려 계층 간의 사회적 유동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판단된다. 즉 조선은 기혈(氣血)이 통하는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 근로의 기풍이 전 사회적으로 관철되는 활기가 넘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생각된다.

홍대용이 얼마나 확고하게 신분 사회와 문벌 사회를 부정했는지는 다음 말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명분(名分)을 중히 여겼다. 양반들은 아무리 심한 곤란과 굶주림을 받더라도 팔짱 끼고 편케 앉아 농사를 짓지 않는다. 간혹 실업에 힘써서 몸소 천한 일을 달갑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모두들 나무라고 비

웃기를 노예처럼 무시하니, 자연히 노는 백성은 많아지고 생산하는 자는 줄어들는다. 재정(財政)이 어찌 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백성이 어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법을 엄히 세워, 사민(四民: 사농공상을 이룸·인용자)에 속하지 않은 채 무위도식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官)에서 형벌을 주어 세상의 큰 치욕이 되게 해야 한다. 재능과 학식이 있다면 비록 농부나 상인의 자식이 의정부(議政府)의 벼슬을 하더라도 참람(僭濫)할 것이 없고, 재능과 학식이 없다면 비록 공경(公卿)의 자식이 하인이 된다 하더라도 한탄할 것이 없다. 상하(上下)가 온 힘을 다하여 그 직분을 닦도록 하며,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상고하여 상벌을 베풀어야 한다.²⁷⁾

신분제는 국가에 의해 직(職)의 세습이 강제될 때 성립된다. 상기 인용문이 보여주는 홍대용의 구상에 의하면 양반이라는 직분은 강제력에 의해 세습되는 것이 아니다. 농공상 역시 마찬가지다. 능력과 자질에 따라 기존에 사(士)였던 자도 농공상에 종사할 수 있고, 농공상이었던 자도 사가 될 수 있다. 사와 농공상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어떤 벽 같은 것은 없다. 사가 농공상이 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농공상이 사가 되는 것이 심히 이례적인 일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사농공상의 사민(四民)은 선천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분히 직업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위 인용문 중 “상하(上下)가 온 힘을 다하여 그 직분을 닦도록” 한다고 했을 때의 ‘직분’(원문은 ‘職’)이라는 단어에는 ‘세습신분’적 의미관련이 소거되고 후천적 직업으로서의 의미관련이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²⁸⁾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 홍대용의 사상은 사회적 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아주 높은 바, 이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위한 모색으로 평가될 수 있다. 홍대용의 경우, 그가 주창한 반전주의는 사회적 평등에 대한

27) 위의 책, p. 434.

28) 하지만 이때 이 ‘직분’이라는 말에 귀천의 구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 점에서 거기에는 신분제와의 연관이 아직 일정하게 잔존해 있다고 할 만하다.

추구에서 확인되는 이런 적극적 의미의 평화에 대한 모색과 안팎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홍대용 사유 속의 평화주의가 어느 정도의 넓이와 깊이를 지닌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VIII. 주체와 타자의 관계: 평화주의의 이론적 정초(定礎)

한편, 주체와 타자에 대한 홍대용의 사유는 평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정초로서 주목을 요한다.

홍대용은 ‘화이일(華夷一)’, 즉 ‘중화와 오랑캐는 똑같다’라는 사상을 주창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중화’는 전통적으로 세계의 중심이자 문명국가로 간주되어온 한족(漢族)의 중국을 가리킨다. ‘오랑캐’는 중국 내부에도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중국 바깥의 국가들을 가리킨다. 전통적으로 ‘오랑캐’는 금수와 비슷한 존재이거나 인간=중국인과 금수 중간쯤에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오랑캐에는 중국과 같은 예법(禮法)이나 문명이 없다고 보아서다.

홍대용은 몇 천 년 간 동아시아를 규율해온 지배적 세계관인 ‘화이론’(華夷論)을 ‘화이일’의 테제로 단박에 깨부숴 버리고, 종족·인종·국가 간의 평등한 관계를 구축해 냈다. 홍대용에 의하면 문명의 차이는 단지 차이일 뿐 거기에 무슨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몸에 문신을 하는 나라의 사람이나 중국처럼 머리에 모자를 쓰는 사람 사이에 우열은 없다. 그것은 각국의 습속(習俗)일 뿐이다. 따라서 모자를 쓰는 나라의 습속을 기준으로 삼아 모자를 쓰지 않고 문신을 하는 나라의 습속을 야만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홍대용이 제기한 ‘화이일’의 테제는 일차적으로 당시 조선 지식인이 오

랑캐로 간주한 청나라를 긍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사상적 내포는 단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선과 일본, 기타 중국 주변의 여러 나라들, 나아가 서양 등도 ‘오랑캐’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이일’이라고 했을 때는 중화나 청에 대한 숙고만이 아니라 조선에 대한 숙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화이일’은 조선을 열등한 타자가 아니라 몇몇한 주체로 정립시키는 논리적 기초가 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화이일’은 중국을 유일한 주체가 아닌 여러 대등한 주체 가운데 하나로 재정립시키는 논리가 되고 있다. 말하자면 ‘화이일’은 비록 이론적 차원이기는 할지라도,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의 평등성을 뒷받침하는 면모를 갖고 있다 할 것이다.

홍대용이 구상한 세계는, 하나의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망 속의 여러 주체가 더불어 공존하는 형국이다.²⁹⁾ 이 경우 주체와 다른 주체(들)은 평등한 관계에 있다. 이 말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억압하거나, 침략하거나, 야만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하나의 주체가 다른 주체(들)보다 우위에 있음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정 주체의 자기중심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남’이 ‘나’를 깔보거나 멸시하거나 유린해서도 안되지만 ‘나’가 ‘남’을 깔보거나 멸시하거나 유린해서도 안된다. ‘화이일’의 사고 체계 속에서는 어떤 주체에게도 그런 정당성이 허여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홍대용이 사유한 ‘주체’는 자고자대(自高自大)의 주체나 자기를 중심으로 간주하는 주체가 아니라, 겸손하며 관계적인 주체다. ‘관

29) 이런 생각은 박희병, “홍대용 사상에 있어 物我의 상대성과 동일성,” 『한국의 생태사상』 (서울: 돌베개, 1999)에서 처음 개진되었다.

계적'이라고 한 것은 상호인정과 상호존중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홍대용에 의해 구상된 이런 주체 개념은 서유럽의 근대 민족주의의 주체 개념과는 그 내질(內質)이 다르다. 후자는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이며 팽창적인 지향이 두드러지지만, 전자에서는 그런 것이 지양되어 있다. 또한 서유럽에서 창안된 민족주의 이념은 중심과 주변, 문명과 야만, 주체와 타자를 늘 이분법적으로 나누며, 억압적·지배적 양상을 띠지만, 홍대용의 이론에서는 중심과 주변, 문명과 야만, 주체와 타자를 폭력적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는다. 모두가 중심이며, 모두가 평등한 주체로 간주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홍대용의 주체 개념은 정치적·윤리적·문명적·국제적 차원에서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정초하고 있다고 할 만하다. 그것은 자기중심성의 지양(止揚)을 통해 얻어진 자기성찰과 겸손을 토대로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인정하며 상대방에게 손을 내미는 주체인 것이다. 주체들 간의 이 상호존중을 통해 획득되는 것은 공존과 공생이다. 한마디로 말해, 홍대용에 의해 구상된 주체의 성격 및 주체들의 상호관계는 평화적 태도에 기초해 있으며, 평화로 귀결된다.

'화이일'은 '인물균'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다. 다시 말해 '인물균'의 논리적 확대가 곧 '화이일'이다. 이 점에서 '화이일'은 '화이균'(華夷均)이라 바꿔 말해도 무방하다. 인물균이 물아의 자기중심성의 지양 위에서 비로소 성립되듯, '화이균' 역시 물아, 즉 '나'와 '남'의 자기중심성의 지양 위에서 성립된다. 이 자기중심성의 지양은, 생태주의에서 출발해 마침내 원대한 의미의 평화주의를 정초해 내고 있다. 바로 이에서 홍대용 사유 속의 생태주의와 평화주의의 깊은 내면적 연관이 잘 확인된다 하겠다.

IX. 맺음말

이상으로 생태주의에서 평화주의에 이르는 홍대용 사유의 논리적 전개과정을 더듬어 보았다. 홍대용의 이런 생태평화론은 당대의 조선과 동아시아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 단순한 관념적 요구의 소산이 아니라는 말이다. 홍대용은 허위적이고 공허하며 진부하기 짝이 없는, 주자학을 중심으로 하는 당대 조선의 학문 현실에 누구보다 깊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부단한 학문적 자기갱신과 자기성찰을 통해 새로운 학문과 세계관을 구상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가 ‘인물균’이며, ‘화이일’이다. 시대를 뛰어넘는 이 놀라운 테제들은 홍대용 최만년의 저작인 『의산문답』에 포함되어 있다.

홍대용이 기존의 학문을 부정하고 새로운 학문을 모색한 것은 궁극적으로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였다. 새로운 진실된 학문만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봤던 것이다.

홍대용의 사유 속에는 정치적·경제적·교육적 ‘평등’에 대한 지향이 아주 강렬하게 담겨 있다.³⁰⁾ 그는 ‘만민개로’(萬民皆勞)를 주장함으로써 무위도식하는 양반층을 도태시키려 했으며, 인민들이 평등한 물질적 기초 위에서 항산(恒産)을 도모할 수 있게끔 균전제(均田制)의 시행을 구상했고, 평민들에게까지 교육의 문호를 개방하여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인재등용 방식을 구상함으로써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벽을 허물어 기존의

30) 홍대용 사상이 보여주는 평등 지향성은 조선후기 사상사의 지형 속에서 볼 때 그 꼭지점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은 곧 출간될 필자의 책 『홍대용의 사회사상』(서울: 돌베개, 2013년 2월 출간 예정)의 제5장 ‘조선후기 사상사의 추이와 홍대용’에서 자세히 밝혔다.

신분제를 해체하고자 꾀하였다.

한편, 홍대용은 절검(節儉)을 지극히 강조하고, 박애(博愛)를 표방하였다. ‘절검’은 홍대용의 ‘존물적’(尊物的) 태도와 연결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갓 구호가 아니며 그가 견지한 세계관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홍대용에게 있어 절검은 정치와 문명의 건강성과 수발(秀拔)함을 보여주는 잣대이기까지 하다. 또한 국왕을 비롯한 지배층의 사치를 비판하고 검소한 삶을 산 군주를 평가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나듯, 절검에 대한 홍대용의 강조는 인민의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그의 열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만년의 홍대용에게서 보이는 ‘박애’의 표방은 ‘화이일’ 사상의 윤리적 실천이라 볼 만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 홍대용의 사상 속에는 ‘생태평화주의’라 할 만한 담론의 계기들이 아주 풍부하다. 이 계기들은 평화와 통일을 모색하는 오늘날의 한국에 긴요한 이론적·사상적 원천을 제공한다. 또한 홍대용의 사상적·학문적 모색 과정과 자세 및 태도는 21세기 현재 생태평화론을 수립하려는 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시사를 주며, 하나의 지적 귀감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홍대용 사상 내부의 생태평화주의적 지향은 한국이라는 지역을 넘어 동아시아인과 전세계인들에게도 소중한 지적 자산이 될 만하며, 장차 생태평화주의의 이론적 심화와 전지구적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문헌】

자료

『국역 담헌서 I, I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4.

국문

박희병. “담헌 사회사상의 논리와 체계.” 『담헌 홍대용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_____. “생태주의와 평화주의.” 『녹색평론』, 80 (2005).

_____. 『한국의 생태사상』. 서울: 돌베개, 1999.

신용하. “담헌 홍대용의 사회신분관과 신분제도 개혁사상.” 『한국문화』, 12 (1991), pp. 345-374.

요한 갈통. 강종일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조광. “홍대용의 정치사상연구.” 『민족문화연구』, 14 (1979), pp. 59-93.

Abstract

Korea's Traditional Ecologism and Pacifism:
the Case of Hong Dae-yong

Park, Hee-B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at introducing the ideas of a Korean intellectual of the 18th century, Damheon Hong Dae-yong, as part of efforts to understand the pacifist orientation of Korea's traditional thoughts. Hong's pacifism, based upon his unique idea of ecological ontology, clearly shows strong orientations towards equality and anti-violence. Hong argued that the subject and the other should not be regarded as being opposed to or exclusive of one another, but rather defined pacifism as an equ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

Key Words: Damheon, Hong Dae-yong, pacifism, ecologism, 人物均(the sameness of human beings and other living things), 華夷一 (the sameness of China and other countries)

박희병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한국의 생태사상』, 『운화와 근대』, 『저항과 아만』, “아사미 케이사이와 홍대용” 등이 있다.